



HUNG 4.2004

응웬만홍의 '별당'

transPOP: Korea Vietnam Remix

예술로 맺어진 한국과 베트남의 '공감'

| 이남희 기자 irun@donga.com |

당신의 삶과 깊은 인연이 있는 나라를 꼽으라면 어디라고 답할 것인가. 팍스 아메리카나를 실현한 미국, 혹은 식민지 통치의 상처를 안겨준 일본, 아니면 떠오르는 이머징 마켓 중국? 이 질문에 의외로 내가 가장 먼저 떠올린 나라는 바로 베트남이다. 베트남전 참전 후 고엽제 후유증으로 오랜 투병생활을 하다 숨진 백부는 '전쟁의 아픔이 현재진행형'임을 일깨워줬고, 대학 시절에는 미국과의 전쟁에서 유일하게 승리한 베트남의 저력을 동경하기도 했다. 재미있는 사실은, 지난해 유럽 출장 중에 만난 여러 아시아 기자 가운데 유독 베트남 기자와 친해졌다는 점. 베트남을 점령한 '한류 열풍'은 두 사람을 가깝게 만든 매개였다. 이렇듯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한국과 애증관계를 지속해온 베트남에 얽힌 추억 하나쯤은 간직하고 있을 터.

2월29일까지 서울 동숭동 아르코미술관에서 열리는 '트랜스팝 : 한국 베트남 리믹스'전은 두 나라의 역사적 트라우마가 오늘날 개인의 삶은 물론, 대중문화와 어떻게 결합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폭력적인 역사를 돌아보며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기보다, 그 상처가 어떻게 대중문화에 녹아들었는지를 다층적으로 보여주는 것. 재미교포 큐레이터 민영순과 보트피플이었던 베트남계 미국인 비엣 레가 공동 기획한 이번 전시에 양국의 작가 16팀이 참여했다. 두 기획자 모두 자국을 어린 나이에 떠난 이민자이기에, 오히려 민감한 주제를 정면으로 다룰 수 있었으리라.

전쟁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두 나라의 젊은 작가들에게 전쟁은 중요한 모티프다. 여전히 살아 있는 역사이기 때문이다. 베트남 작가 단 큐레는 다큐멘터리 '농부와 헬리콥터'에서 직접 만든 농업용 헬기를 국가에 강탈당한 농민들의 증언을 담았다. 농기구가 하루아침에 살상 도구로 변하는 '전쟁의 아이러니'를 꼬집은 것. 한국 작가 유순미의 비디오 영상 '씻김 : 죽은 자에게 말 걸기'는 한국군이 주둔했던 베트남 지역 주민들의 인터뷰를 기록한다. "(전쟁 당시) 한국 사람을 미워했지만, 당신(작가)을 보니 우리와 똑 같은 사람이군요"라는 한 베트남 주민의 말에서, 이 작업이 곧 '치유 의식'임을 알 수 있다.

세대를 건너 상흔은 젊은 작가들의 상상력을 통해 새롭게 재해석되기도 한다. 리오양리는 어두운 술집에서 찍은 자신의 얼굴 사진에서 전쟁 당시 토굴에 숨어 있던 피난민의 모습을 떠올리고(‘초상화 이야기’), 안마이 레는 전쟁 이미지를 실제처럼 연출한 흑백사진(‘작은 전쟁에서 구하기’)을 통해 사실과 판타지의 경계를 넘나든다. 각색된 그의 사진에는 베트남전과 이라크전 사이에 존재하는 미묘한 간극이 드러워진다. 한편, 꽃으로 위장한 군인이 등장하는 이용백의 영상 ‘엔젤 솔저’에서는 전쟁의 잔상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

상처를 극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사회상을 통렬하게 비틀고 풍자함으로써 카타르시스를 얻거나, 그저 일상을 담담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좀더 ‘의식적인 문제제기’를 택한 작가는 송상희와 대만·베트남 출신 작가 그룹인 린+람. 페미니스트 작가로 꼽히는 송상희는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재연, 반복(‘국립극장’)함으로써 여성이 피해자가 됐던 역사적 사건을 부각한다. 1960년대 베트남 선전영화를 발굴해 영화 속 1초 장면들을 연속 24컷으로 만든(‘미확인 베트남’) 린+람. 이들이 당시 프로퍼간다 필름 아카이브를 찾아나선 이유는 60년대 베트남 남부의 국가 만들기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더욱 가슴을 울린 것은, 급변하는 현대사 뒤꼍에서 살아가는 두 나라 민중의 삶이 담긴 작품이다. 잠실 재건축아파트 단



송상희의 '국립극장'.
안마이 레의 '작은 전쟁에서 구하기'.
이용백의 '엔젤 솔저' (위에서부터 시계 방향)



티파니 정의 비블 더블 바주카 중 일부.

지 앞에서 뛰노는 10대들의 모습(박진영의 '단지를 접수한 소년들')과 판잣집을 이은 베트남 고층 아파트 그림(응웬 만 흥)은 어딘가 모르게 닮아 있었다. 두 나라가 겪은 급격한 사회경제적 지형 변화를 유머러스하게 표현했기 때문일 것이다.

무거운 역사적 진실을 내포하는 수많은 작품 가운데 이번 전시의 목표를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은 티파니 정 작품들. 그의 관심사는 더 이상 역사적 상흔이 아니다. 그는 아시아 문화가 국경을 넘어 '리믹스' 되면서 자신만의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과정을 포착한다. 비디오에서는 베트남 무대에 선 한국 아이돌 스타들이, 컬러풀한 그림에서는 베트남 의상을 입은 일본인이 등장한다. 특히 설치작품 '사탕수수 금굴 혼합주스'는 아시아적 문화 감수성을 드러내는 압권이다.

여러 모로 얽힌 점도, 공통점도 많은 한국과 베트남. 두 나라의 애증은 쉽게 해소되거나 매듭지어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미래를 향한 두 나라의 문화적 상호작용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그 거대한 흐름을 초(超)국가적으로 목도하는 이번 전시는 향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순회전으로 소개될 예정이다. 02-760-4724